

Coptic Orthodox Patriarchate
His Holiness Pope Tawadros II
Pope of Alexandria and
Patriarch of the See of St. Mark
The Papal Center



بطيركية الأقباط الأرثوذكس
قداسة البابا الأنبا تواضروس الثاني
بابا الأسكندرية
وبطيرك الكرازة المرقسية
المقر البابوي

222 Ramses St., Abbaseya, Cairo, Egypt

Πατριάρχος

222 شارع رمسيس ، العباسية ، القاهرة ، مصر

Tel: 024822580

Fax: 0235365880

email: office@popetawadros.org

تليفون: 024822580 فاكس: 0235365880

Korean - Resurrection 2024

한 분이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분의 은혜와 자비는 이제부터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기를. 아멘. 크리스토스 아네스티, 알리토스 아네스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광스러운 부활절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세계의 모든 대륙;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북미, 남미, 그리고 호주와 우리의 대단하신 하느님의 도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콥트 정교회들과 수도원들께 축하드립니다. 저는, 대사순절, 곧 성단식을 금식한 후에 오는 이 부활절을 여러분께 축하드립니다. 금욕적인 수행과 영적인 삶을 포함하는 이 단식은 우리에게 충만하고 만족스럽습니다.

우리가 부활과 부활의 새벽에 이르면 많은 장면이 펼쳐집니다. 이 장면 중에서 마리아들이 향료를 바치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무덤 입구를 막아 둔 돌을 누가 굴러 줄까요?” (마르코 16:3) 이 질문은 마리아들에 의해서만 제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많은 주제와 상황에 직면하며 때로는 우리 삶에 돌이 뚜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 돌은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돌은 게으름일 수도 있고, 일에 대한 지나친 집착일 수도 있고, 사람의 자아일 수도 있고, 우선 순위와 그들의 배열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 이돌을 굴러줄 수 있을까요? 여기서 이돌은 어려움의 상징입니다. 누가 옮길까요? 물론 그 마리아들은 여성분라서 어려웁니다. 무덤 문을 막고 있는 큰 돌이라 옮기기가 쉽지 않았습니. 이 돌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많은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질문이 나옵니다: “누가 그 돌을 굴러줄 것인가요?” 누가 문제를 해결하나요? 누가 이 어려움을 없앨 것인가요? 막다른 골목은 누가 여나요? 부자 청년이 생각납니다 (루가 18:18-23). 그는 잘 살다가 그리스도께 가서 아주 아름다운 질문을 하며 “선하신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라고 질문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자신의 영원함을 추구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설명하신 후에 그남자가 “선생님, 저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한 단계도요. 그 한 단계란 무엇입니까? “가서 네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어라.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보물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십자가를 들고 나를 따르라”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 청년은 울상이 되어 근심하며 떠나갔다고 합니다.(루가 18:23). 그의 앞에 돌이 있었는데 그는 그것을 건널 수 없었습니다. 그의 재산은 돌이었습니다. 바리사이파 사람과 세리의 비유도 (루가 18:9-14) 생각나게 합니다. 그들이 기도하러 들어갔을 때 이 바리사이파 사람의 독선이 그 앞에 섰습니다. 그의 독선과 자기가 최고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세리였던 사람은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나왔습니다. 그가 한 마디 말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 하느님! 죄 많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주십시오.” (루가 18:13) 누가 우리를 위해 돌을 굴려줄 것인가요?

두 번째 점은, 마리아들입니다, 비록 그 질문이 그들을 사로잡고 직면하기 어려웠지만, 사실은 부지런하고 결단력을 가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했나요? 향료를 준비하고 자신들을 준비했으며, 일찍부터 나가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마르코 16:1). 왜냐하면 그들은 십자가에 못박히시고 죽은 그리스도의 시체 위에 이 향료들을 놓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고민은 돌을 굴릴 사람이 누구인가였습니다. 그들은 이 질문은 망설이게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결단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흔들림없는 희망과 불변의 신념으로 끈질겨 버텼습니다. 사도 방울로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구절을 전합니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일하며 열렬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십시오.” (로마서 12:11). 구약 성경 잠언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른 사냥꾼은 한 마리도 못 잡아” (잠언 12:27). 만약 여러분이 낚시줄을 가져다 놓고 잘 준비하지 않으면, 물고기를 잡지 못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느헤미야가 포로 생활을 했을 때의 상황이 우리 앞에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나라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왕의 허락을 받은 후 자기 나라 성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건축하려고 했으나 능력이 없어서 성벽 둘레에 사는 사람들 각자에게 자기 집 앞 성벽의 부분을 건축하라고 일렸습니다. (느헤미야 3:28)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이 강력한 슬로건을 주셨습니다. “하늘의 하느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니 그의 종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 (느헤미야 2:20). 이는 우리가 일어나 일하는 동안 하느님으로부터 이 성공을 거두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 앞의 벽은 파괴되었고 문은 불에

탓어도요. 아마도 이와 같은 상황이 슬기로운 처녀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5:1-13). 그들은 열심히 일하고, 기름을 준비하고, 등불을 준비하며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언제 신랑 그리스도께서 오실지 알지 못하면서도 깨어 있었습니다. 첫 단계는, 누가 우리를 위해 돌을 굴릴 것인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어려움이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근면과 노력이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좋은 단계였으며 그것은 올려진 돌의 단계였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의 손이 작동할 때였습니다. 그들은 무덤에 도착하여 돌이 굴러간 것을 보았습니다 (마르코 16:4). 그들의 감정을 상상해 보십시오. 내면의 기쁨은 문제와 어려움을 나타내는 돌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들어 올려졌고, 그는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돌이 굴러가고, 무덤이 비어 있었고, 하느님의 손이 일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면 우리 주님의 손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시오. 어느 날, 부활 이틀 전에, 십자가는 금요일에 있었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박히셨고, 오른쪽에는 도둑이 있었고 왼쪽에는 또 다른 도둑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마치 도둑인 것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오른손의 도둑은 아름다운 문구를 했고, 저는 그가 그 결과를 기대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의 결과는 이 것이었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루가 23:42-43).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그분과 함께 일으키기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여러분이 어려움이나 문제에 직면할 때, 열심히 일하고 정직하고 하느님의 손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 결과는 여러분의 믿음과 희망으로 놀라울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잔치를 축하드립니다. 저는 모든 대주교들과 주교들, 대사제들과 사제들께 축하드립니다. 저는 집사, 아곤, 그리고 하인들께 축하드립니다. 또한 모든 교회와 모든 곳의 모든 콥트 가족들께 축하드립니다. 저는 젊은 남녀에게 축하하고, 또한 소녀들에게 축하하고, 아이들에게 축하합니다. 이집트 땅과 콥트 정교회에서 여러분 모두를 축하합니다. 여기 대성당, 카이로 아바시아에 있는 성 마르코 대성당에서 모두에게 축하를 보내드립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의 말씀을 되풀이하면서 기념하고 기뻐하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쾌활함과 깊은 감각으로 가득 찬 즐겁고 축복받은 잔치를 기원합니다. “빛의 아들들아, 우리가 만군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일어나라.” 크리스토스 아네스티, 알리토스 아네스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Pamadas II